

[성명]

마침내 주권자가 승리했다. 이제 단죄의 시간이다!

헌법재판관 8인은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다. 12월 3일 윤석열 내란사태 이후 123일 동안 끈질기게 싸워 온 시민들의 승리다.

123일 간의 투쟁은 극우파시즘 내란세력과의 대결이었다. 그들은 국민의힘, 언론, 법원, 검찰, 정부기관, 종교 등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이들을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가 꿈꾸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는 윤석열 파면에서 멈출 것이다.

반성 없는 내란극우파시즘이라는 괴물은 재집권을 꿈꾼다. 내란 세력 척결과 재집권 저지를 위해 내란청산·민주수호를 외친 모든 세력이 하나 되어 그들을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하자.

광장은 끝나지 않았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은가. 이제 민주노총은 새로운 투쟁에 나선다. 내란세력 청산을 통해 사회대개혁을 실현하자. 차별과 배제, 불평등을 넘어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사회, 공무원교사도 정치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존중 사회의 길을 열어낼 것이다.

2025.4.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